

# 2021 추수감사주일

## 매를 버는 마음과 축복을 부르는 마음

[시편 37: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1. 캐릭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캐릭터'이다. 캐릭터는 사람의 개성이나 이미지를 말한다. 소설이나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나 외모 등의 속성을 가리켜 캐릭터라 말한다. 캐릭터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며, 마음 상태의 열매이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가 캐릭터가 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캐릭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 1:26, 28]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미지)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캐릭터가 분명히 소개된다. '다스리는 자'이다. 다스림은 지도자, 왕의 캐릭터이다. 지도자와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다.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가장 넉넉한 마음이다. 주는 마음이다. 백성들을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이 왕의 마음이다. 그것이 왕이 다스릴 수 있는 권위의 토대가 된다.

\* **폭군** - 역사에서 폭군들을 보라. 빼앗는 자, 갈취하는 자, 망하게 하는 자이다. 그래서 폭군이 지도자가 될 때 나라가 가난해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 2. 하나님의 마음 = 아버지의 마음 =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는 마음이다. 주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주는 마음의 대표적 말씀이 요한복음 3:16절이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는 마음'이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시겠습니까? 독생자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말한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다.

[누가복음 15:22-24, 31]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1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된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 집 나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 주는 마음이다. (22절 ~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을 신기라) 그리고 동생을 질투하는 형에게도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며 주는 마음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이다.

### 3. 주는 마음 - 축복의 통로

창조하신 사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은 창세기 1:28절 말씀처럼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의 본질인 '주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주는 마음'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의 마음에 그려진 하나님의 원형의 설계도가 주는 마음이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내 마음 설계도가 원래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복'이 실제로 활성화 (엑티베이트) 되기 때문이다.

\* **그릇의 크기** -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땅에서 다스림의 권위와 권세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주는 마음'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 그릇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와 비례한다. '와, 저 사람 그릇이 대단하다'라는 말은 '저 사람 마음이 넓다'라는 표현과 같다. 예수님의 마음의 크기를 생각해 보라.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이다. 그 마음의 크기에 온 인류가 담겼다. 그리고 회복되었고, 축복을 받았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옆에 있던 강도의 청을 받아 그를 구원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라. 마지막까지 '주는 마음' 이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마음의 그릇이다.

#### 4. 다윗의 마음 - 축복을 받은 이유

다윗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성경에 명확히 소개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왕의 마음이다. 넓은 마음이다. 주는 마음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들람'이다. 다윗이 담아내었던 사람들의 면모를 보라.

[사무엘상 22:1-2] 1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냈을까? 아주 간단하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왕의 마음 '주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 용사가 되었는가? 다윗이 주었기 때문이다. 사울에 대한 마음을 보라. 사울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담아낸다. 이런 다윗의 마음의 크기는 그대로 현실에 나타난다.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였는지 알 수 있다. 마음의 크기가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된다.

#### 5. '매를 버는 마음과 축복을 부르는 마음'

우리말에 '매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다. 맞을 짓을 하는 행동이다. 같은 행동을 해도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매를 부른다고 말한다. 이것이 '죄에 오염된 마음'이다. 죄에 오염된 마음이란, 예정된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하고야 마는 마음이다. 하나님에 기뻐하지 않는 행동, 감정, 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 심판과 저주가 이미 결과로 주어졌음에도 그렇게 한다. 바로 이것이 죄에 오염된 마음이다.

#### 6.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시편 37: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다

4 기쁨은 오직 주님께에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새번역)

시편 말씀을 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왜 여호와를 기뻐해야겠는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새번역으로 보니 '기쁨을 오직 주님께에서 찾아라' 라는 말씀이다. 즉,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마음, 주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

\*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고 싶은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시겠는가?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다윗의 인생을 보라. 한 마디로 말하면 '은총'의 사람이다. 은총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복을 받은 것이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고민은 온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 예배하기를 좋아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의 기쁨이 되었다. 생각해 보라. 어떤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의 기쁨을 향해 온전히 집중되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아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을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엄청난 메시지이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은 놀랍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진 분이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관계'의 밀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포지션과 모양만 아들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아들이었다. 누가 아들인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들인 것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할 일만 고민하는 존재가 아들이다.

#### (1) 주는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다.

주려고 해라. 나누려고 해라. 줄 수 없는 존재, 나눌 수 없는 존재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 (2)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인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다.

아버지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 아들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을 때이다. '나 때는 못했는데, 내 아들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라. 자녀 자랑보다 더 큰 부모의 자랑이 무엇이 있겠는가? 조이풀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온 성도들이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추수 감사절에 축복한다. 할렐루야!